

참된 행복과 축복의 절대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모세 -복음으로 여는 신명기- 신명기 6:4-9, 마태복음 4:3-11

정윤돈 목사님

* **신6: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 **마4:3-11**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의문과 기도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한 말씀들은 모두 신명기의 말씀이다.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강단메시지가 없으면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된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축복과 상관없는 재앙과 저주가 온다.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다. 재앙이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데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의 본질도 전혀 모른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유대인, 오직 이스라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끊일 날이 없다. 유대인이 잘한 일들도 있다. 그런 건 나름대로 복을 받고 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들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말씀과 벗어난 건 꼭 문제가 생긴다. 말씀으로 흑암을 꺾어야 한다. 깨닫기만 해도 된다. 청소를 하다가 더러운 곳이 있음을 알게 되면 언젠가 청소를 한다. 그러나 모르면 계속 그대로 둔다.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강단 가운데 하나님이나 연결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명기 말씀은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의 말씀이다.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다. 신명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 램넛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 등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여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 가지 뜰과 금도일시대, 회당운동을 하는 것이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이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참된 행복과 축복의 절대망대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라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게임하기를, 놀기를, 중독을 좋아한다. 그건 선악과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나를 죽이는 일이다. 우리 체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한다. 그걸 깨야한다. 그래야지 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면 욕적으로 생각한다. 안 믿는다.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못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했다. 나에게 주신 어떤 것보다 달디는 걸 한 번만 느껴도 된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걸 한다. 뭘 추구하고 뭘 하는지 모른다. 모르면서 막연히 답답해하고 신경질내고 만족을 못 한다.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응답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다. 한 번만 주를 기뻐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광야 40년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겠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러한 건강의 응답 또한 반야야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신명기의 중간 부분은 실천해야 할 말씀들과 그 축복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과 율례의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불편하고 듣기 싫고 짜증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축복이라고 붙잡는가. 그리고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말씀이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보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함께 갈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된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 칼이 되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 ‘정복자’ ‘성공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 약속을 보장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은 무엇일까. 오늘은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다.

(1) **첫째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는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 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금 더 진실해져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전도와 선교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은혜는 열배로, 보복은 백배로 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신 건 주변 나라와 세계를 살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선민이라고 하신 게 아니다. 요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만큼 인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체질되지 않으면 모양만 내다가 끝난다. 누리고 응답하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면 안된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겸허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해보려고 하는 자세, 안 되지만 안되는 핑계를 대지 않는 자세,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더불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과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말씀을 ② 네 마음에 새기고 ③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④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문화를 만들라는 말이다. 세 가지 뜻이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세계를 이끈 민족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생명같이 틀리게 붙잡아도 이룬데, 완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겠나. 우리가 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잘 해 가면 된다. 탕넛트들을 잘 키워야한다. 돈 걱정하는 후대를 만들면 안 된다. 원니스되면 된다. 우리의 중심이 내 가정, 내 사업만 생각하거나 흑암에 가득 차서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우상숭배를 하거나 무속 점술과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우상숭배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최고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귀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데에 빌고 절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야한다. 운명, 시주, 팔자를 찾거나 귀신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면 안된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는 존귀한 존재다. 겸손해야하지만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져야한다. 마귀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마귀는 속인다. 속여서 스스로 자빠지게 한다. 아무리 자빠뜨려도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못 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사탄과 귀신의 저주와 재앙이 개인과 가정, 가문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당들은 개인과 가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무속, 점술, 우상의 문제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무속, 점술, 우상의 문제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답답하게 산다. 우상문제만 알아도 최고의 축복이다. 정치인, 지식인들은 모른다. 문화라면서 우상을 연구하고만 있지,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을 모른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운명, 시주, 팔자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굉장한 건축작품을 남겼다. 가우디가 그렇게 맛있는 예술품을 만들었는데 가정, 가문은 완전히 저주받았다. 노숙인처럼 살다가 죽었다. 왜 그럴까.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유럽이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곳곳에 성당만 짓고 우상문화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3)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겠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 제가 유럽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전쟁과 저주와 재앙이 많은지 모른다. 천주교와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전쟁한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

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말씀은 절대계명이다. 그러나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상으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완전 복음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키라는 게 아니다. 이제 날마다 안식일이요 날마다 주일이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다니엘과 요셉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복음이니가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백만 해도 된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이다. 잘못하면서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바라볼 줄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면서 발전하는 인생이 아니다. 성경적인 인생이 아니다.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신명기의 많은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우선 신명기 안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들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복음과 언약의 망대이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많은 율법과 율례는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자, 참된 성공자, 정복자로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과 율례들의 중요성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겠다.

(2) Vision, 비전 망대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들을 무속, 점술, 우상과 잘못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3) Dream, 드림 망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24시간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 망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자녀다. 조금만 전도와 선교와 훈련에 집중한다면 3.9.3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현 망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에 조금이라도 도전하고 실천해보시기 바란다. 금도일시대와 세 가지 뜰과 회당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끝으로 참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현장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고 나만 행복할 뿐 아니라 재앙과 저주에 빠진 많은 사람과 237나라를 살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